

#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ctor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권희경\*\*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 교수 장영은\*\*\*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수 성미영

Associate Professor : Kwon, Hee-Ky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Chang, Young-Eun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istant Professor : Sung Mi-young

Dep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A total of 338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Gyeong-gi, and Kyungnam area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parents' employment history, achievement motivation, and gender egalitarian attitude. A two-way analysis of variance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gender and grade on positive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y gender indicated that factors related with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may differ by gender. For male students, grade, and socio-cultural gender egalitarian attitud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ositive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female students, grade, family monthly income, mother's employ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and achievement motivation were related with positive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 취업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maternal employment),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양성평등의식(gender egalitarian attitude), 부모취업력(parents' employment history)

---

\* 이 논문은 2008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권희경 (E-mail : hkkwon@changwon.ac.kr)

\*\*\* 교신저자 : 장영은 (E-mail : yechang@cau.ac.kr)

## 1. 서론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각종 정책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낳아 기르기 쉽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유자녀 여성의 취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여성 취업을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더불어 취업률이 하락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데(김우영, 2003), 이는 영유아보육과 같은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나 노동시장의 불합리성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 개인적 인식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내외의 연구들 역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어머니의 취업, 또는 어머니 취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이용이 자녀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여 왔으며(e.g., 김정희, 문혁준, 2006; 배성연, 2005; Belsky, 1986; 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 Clarke-Stewart, 1989; Harvey, 1999)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취업한 어머니 자신이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경우,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취업에 대해 만족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자녀가 성장하며 인지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Chang, 2003). 즉, 취업 또는 비취업이라는 변인 자체보다는, 어머니 취업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신념체계가 취업모 자신의 건강과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를 걸쳐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한 신념, 특히 어머니 취업이 자녀발달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취업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지는 어머니 취업에 대한 신념 역시 사회적 분위기,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에 의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념은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에서 1972년 전국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67.3%의 응답자가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좋지 않으며,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응답하였으나, 1998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40.9%로 감소하였다(Davis, Smith, & Marsde, 2001). Greenberger, Goldberg, Crawford와 Granger(1988)는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BACMEC)' 척도를 개발하여 어머니 취업으로 인해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을 각각 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주로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믿을수록 어머니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전일제 취업을 선택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취업한 경우 직업관련 스트레스가 적으며, 일-가정 양립에서 갈등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이 결혼하여 취업보다는 자녀 양육을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경우 취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지각이 낮으며, 유자녀 여성의 취업이 자녀발달에 단기, 장기적으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Chang, 2003). Hock과 DeMeis(1990)는 긍정적인 취업신념을 가진 취업모의 경우 부정적 태도를 가진 취업모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영은(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가지는 긍정적인 취업관련 신념은 취업모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낮추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well-being)에 기여하여 자녀와의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예측하였다. 나아가, 어머니의 긍정적인 신념은 어머니의 보다 나은 심리적 안녕을 매개로 하여 어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까지 예측하였다. 반대로, 전업주부의 경우 취업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졌을 경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의 사회성에도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였다. 이와 같이 취업에 관련된 신념은 어머니, 어머니-자녀, 그리고 자녀의 심리적, 발달적 결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관련 신념은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결혼을 하여 자신 또는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해 경험하게 될 가족생활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손경화와 조복희(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여성과 남성의 가정에서의 역할, 여성의 직업관련 역할, 그리고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에서 보다 평등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실제 결혼과 출산 및 육아를 경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이다. 미국 NICHD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단 연구인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의 경우 자녀를 출생한 당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신의 취업여부를 떠나 여성취업이 자녀에게 영향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여 실제 취업과 육아라는 이중역할을 경험하기 전의 태도를 측정 한 바 있다(NICHD, 1998). 선행연구들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취업의 영향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것은 연구변수로서 한계점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즉, 어머니를 대상으로 측정

된 신념은 결혼생활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 취업 또는 비취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시간에 따라 변화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결혼 및 취업 이전의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취업의 긍정성에 대한 신념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런 신념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성취동기와 성역할에 관한 의식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한 신념 역시 이후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 남자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그 설명요인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을 조사하였으며, 어머니 취업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 성장에 있어 의미 있는 환경요인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의 취업 또는 비취업의 경험은 곧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가지고,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형성할 대학생들이 자신의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 및 취업과 관련하여 내리게 될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출산 후 자녀양육기에 이르러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의 양상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발달적 관점에서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후반과 성인기 초반에 걸쳐 있는 시기로서, 지금까지의 성장 환경에 대한 반응을 완성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갖는 성취동기와 성역할에 대한 의식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 시기의 성취동기 수준이 높을 경우 직업준비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향은 결혼 이후 배우자, 특히 아내의 취업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시기의 대학생들이 성역할에 대해 갖는 개념은 과거 자신의 부모의 취업력 등의 성장 환경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대학생 자신의 취업이나 진로 선택에 관련된 변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이 자신의 취업이나 진로 선택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취동기 수준이 중요한 요인임을 통해 볼 때(유계식, 이재창, 1997; 조지혜, 2007),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역시 성취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은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였고 진로에 대한 준비 역시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조지혜, 2007), 성취동기가 높은 대학생은 보다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계식, 이재창, 1997). 이처럼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의 취업에 대해 성숙한 태도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성취동기가 높은 대학생은 어머니 취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모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대학생의 성취동기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성취동기와 모취업의 부정적 신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실시되었다.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모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간에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성미영, 권희경, 장영은, 2010)를 통해 볼 때, 모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역시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와 모취업의 부정적 신념 간에 정적 관련이 있다는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손경화, 조복희, 2009; Greenberger et al., 1998)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모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역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살펴본 결과(Chang, 2003), 어머니가 가진 직업관련 성취동기가 높을 때 어머니가 보다 긍정적으로 유자녀 여성의 취업을 인식하였으므로 발달 시기가 다른 대학생의 경우 모취업에 대한 인식이 유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과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높은 성취동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끈기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사회적 유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하며(이운경, 도현심, 2005),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대학생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가지는 신념에 성취동기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여러 변인에서 성취동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소년 및 대학생의 학업성취, 성취동기, 부모자녀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박영신, 김의철, 2003; 이운경, 도현심, 2005;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6; 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성취동기를 높이고 높아진 성취동기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탁수연 외, 2006). 또한, 어머니의 기대, 지적 활동에 대한 칭찬과 고취 등은 자녀의 성취동기를 증가시켰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역시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이는 성취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운경, 도현심, 2005; Zimmerman et al., 1992). 그런데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는 부모자녀관계 변인 중 어머니의 기대와 같은 변인이 관련되었음을 보여주었으나, 자녀의 성취동기

와 어머니 취업에 대한 자녀의 신념의 경우 어머니 취업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신념과 자녀의 성취동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자녀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인이 결혼한 이후에도 취업을 하는 대신 자녀양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취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Chang, 2003)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념의 정도가 취업 이전의 대학생 시기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해 성숙한 태도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유계식, 이재창, 1997), 이러한 성취동기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높다는 점(이재창, 유계식, 1996)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취동기에서의 성차와 더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성미영 외, 2010)에 의하면 남학생의 모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취업에 대한 대학생의 부정적 신념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통해 볼 때 모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서도 성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대한 학년 간 차이에서도 어머니 취업에 대한 대학교 저학년 학생의 부정적 신념이 고학년 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성미영 외, 2010) 어머니 취업의 긍정적 신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제 활동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모성 취업은 여전히 성별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며, 성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모성취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난다(성미영 외, 2010). 양성평등의식은 여성과 남성이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성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지 않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지하는 태도이다(곽경숙, 한아름, 2007; 김양희, 정경아, 2000). 성역할의 차이가 아닌 평등성에 주목한 학자들(김양희, 정경아, 2000; Beere, King, & King, 1984; King & King, 1997)은 성인지적이고 성중립적인 관점에서의 양성평등의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양성평등의식은 기존의 성역할태도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응하여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다. 한국형 양성평등의식 척도를 제안한 김양희와 정경아(2000)는 양성평등

의식을 가족, 교육, 직업, 사회문화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직업 양성평등의식은 직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성평등한 역할과 태도 등을 포함하며, 사회문화 양성평등의식은 대중매체 및 사회적 맥락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지도와 민감도, 사회적 인식 등을 포괄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노년층보다는 청장년층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더 양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재순, 2008; 곽경숙, 한아름, 2007; 권희경, 2006; 김양희, 정경아, 2000; 김원경, 2008).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성차는 이처럼 여러 연구에 의하여 밝혀졌지만,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이 사회심리적인 태도, 특히 모성취업 등 성별과 관련성이 높은 현상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식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 외에도 직업,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 가능하므로 양성평등의식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검토하고자 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부모의 취업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성별, 학력, 가족소득, 부모 취업력, 성취동기 및 양성평등의식은 관련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 4> 성별, 학력, 가족소득, 부모 취업력, 성취동기 및 양성평등의식은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가?
- [4-1] 학력, 가족소득, 부모 취업력, 성취동기 및 양성평등의식이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과 경남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 10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수도권 2개 대학교와 경남 지역 5개 대학교의 강의 시간을 통하여 설문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학생 350명에게 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a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학생	102(30.2)	전공	인문사회계열	227(67.2)	
	여학생	231(68.3)			이공계열	105(31.1)
학년	1학년	43(12.7)	지역	수도권	212(62.0)	
	2학년	87(25.7)			경남	125(37.0)
	3학년	119(35.2)	가족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6(10.7)	
	4학년	85(25.1)			200만원-300만원 미만	67(19.8)
연령	18-20세	123(36.4)			300만원-400만원 미만	93(27.5)
	20-22세	139(41.1)			400만원-500만원 미만	52(15.4)
	23세-25세	58(17.2)			500만원-600만원 미만	37(10.9)
	26세 이상	15( 4.4)		600만원 이상	35(10.4)	
아버지 직업	판매서비스직	61(18.0)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144(42.6)	
	노무직	53(15.7)			판매서비스직	62(18.3)
	사무직	54(16.0)			노무직	30( 8.9)
	전문기술직	36(10.7)			사무직	28( 8.3)
	관리직	67(19.8)			전문기술직	25( 7.4)
	기타	55(16.3)			관리직	11( 3.3)
아버지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6(10.6)		기타	30( 8.9)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2(45.0)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51(15.0)	
	대학교 졸업 이하	110(32.5)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6(60.9)
	대학원 이상	33( 9.8)			대학교 졸업 이하	66(19.5)
				대학원 이상	10( 3.0)	

a. 무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34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한 338부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정보를 제공한 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Greenberger 등(1988)이 개발한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BACMEC)' 중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신념을 묻는 13개의 문항을 번안하여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취업모의 아들은 커서 아내가 일하며 아이를 키울 때 더 잘 도울 것이다.", "풀타임 취업모의 딸들은 학교에서 더 잘하려는 내적 동기가 강하다." 등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음을 뜻한다.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77 이

었다.

### 2)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Spence와 Helmreich(1983) 등이 개발하고 권희경(1997)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욕구를 측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음을 뜻한다.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0이었다.

### 3) 양성평등의식: 직업 양성평등의식과 사회문화 양성평등의식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은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양성평등 척도 중 직업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의 양성평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업 양성평등의식 척도는 경제 활동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능력에 대한 인식, 직장에서의 업무와 승진 등에 대한 양성 평등성에 대한 지지도 등을 측정하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문화 양성평등의식 척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사회활동, 미디어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뜻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 ) 계수는 .87과 .82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이원변량분석,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취업력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조사대상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41.8점(SD=6.1)으로 응답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11~65점 중 중간값인 38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의 취업력에 따라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취업 시기별로 취업 대 비취업에 따른 신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성장시기 전 기간 동안 아버지의 취업력에 따라 대학생이 가지는 어머니 취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취업력은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

정적 신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어머니가 취업을 했던 경우(M=42.3, SD=6.3), 취업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자녀(M=40.8, SD=5.5)에 비해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2.26, p<.05$ ). 초등학교 시기의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p<.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 시기 어머니가 취업했던 경우 대학생으로 성장한 자녀가 어머니 취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취업 시기가 최근일수록 어머니 취업력에 따라 대학생의 긍정적 신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성별과 학년에 따라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에 대하여 성별과 학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평균은 41.5점(SD=5.8), 여학생의 평균은 41.9점(SD=6.1)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저학년 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평균은 41.0점(SD=6.1), 고학년 학생의 평균은 42.3점(SD=6.0)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과 학년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저학년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평균은

<표 2> 부모의 취업력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구분	비취업		취업		t	
	n	M(SD)	n	M(SD)		
아버지 취업력	영유아기	12	43.0(4.1)	305	41.7(6.1)	.72
	초등학교 시기	14	42.6(4.4)	303	41.7(6.1)	.55
	중고등학교 시기	24	43.5(8.4)	294	41.6(5.8)	1.44
어머니 취업력	영유아기	213	41.9(6.2)	101	41.4(5.7)	.75
	초등학교 시기	164	41.1(6.3)	154	42.4(5.6)	-1.87
	중고등학교 시기	125	40.8(5.5)	193	42.3(6.3)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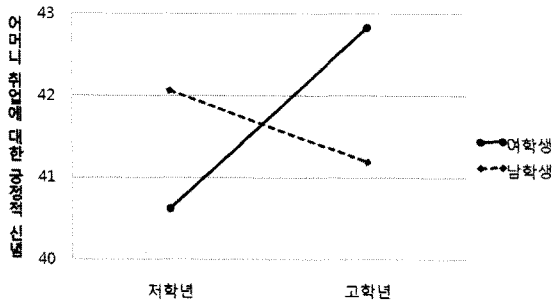
\*  $p<.05$

<표 3>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이원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성별	.62	1	.62	.02
	학년	28.27	1	28.27	.79
	성별×학년	149.18	1	149.18	4.18*
	오차	11607.60	325	35.72	

\*  $p<.05$

42.06점이고 고학년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평균은 41.19점으로 저학년 남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고학년 남학생의 신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 저학년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평균은 40.62점이고 고학년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평균은 42.83점으로 저학년 여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고학년 여학생의 신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성별과 학년 간 상호작용 효과

3.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성취동기와 유의한 정적 관련( $r=0.17, p<0.01$ )을,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과 부적 관련( $r=-0.12, p<0.01$ )을 보였다. 즉, 대학생들이 보이는 어머니 취업의 긍

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았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영유아 시기 어머니의 취업력이 부적인 영향( $\beta=-0.13, p<0.10$ )을 미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시기 어머니의 취업력( $\beta=0.13, p<0.10$ )과 성취동기( $\beta=0.18, p<0.01$ )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영유아 시기에 어머니가 취업을 했던 경우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했으며, 어머니가 초등학교 시기에 취업했던 경우와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일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회귀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은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변량 중 8% 정도를 설명하였다.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은 1.08에서 2.73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Myers, 2000).

4.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역할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다.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표 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별 <sup>a</sup>	-											
2. 학년 <sup>b</sup>	-0.20**	-										
3. 가족 소득	.12*	.07	-									
4. 영유아기 어머니 취업력 <sup>c</sup>	-.09	-.02	.08	-								
5. 초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sup>c</sup>	.07	-.06	.09	.46**	-							
6.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sup>c</sup>	.06	-.06	-.02	.27**	.54**	-						
7. 영유아기 아버지 취업력 <sup>c</sup>	.08	.06	.17**	.01	.07	.01	-					
8. 초등학교 시기 아버지 취업력 <sup>c</sup>	.09	.03	.13*	-.05	-.01	-.06	.63**	-				
9. 중고등학교 시기 아버지 취업력 <sup>c</sup>	.12*	.01	.22**	-.09	.01	-.10	.45**	.53*	-			
10. 성취동기	.23**	.07	.03	.07	-.04	.01	-.02	-.01	-.11	-		
11. 직업 양성평등의식	.64**	-.20**	.04	-.07	.05	-.08	.01	.02	.05	-.02	-	
12. 사회문화 양성평등의식	.57**	-.11	-.04	-.06	.02	-.02	.07	.05	.02	-.09	.73**	-
13.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05	.05	.08	-.03	.11	-.12*	-.05	-.03	-.08	.17**	.04	.06

\* p<0.05, \*\* p<0.01, a. (남성=0, 여성=1) b. (저학년=0, 고학년=1) c. (비취업=0, 취업=1)

&lt;표 5&gt;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B)	$\beta$
성별 <sup>a</sup>	.79(1.08)	.06
학년 <sup>b</sup>	.36( .37)	.06
가족 소득	.39( .25)	.09
영유아기 어머니 취업력 <sup>c</sup>	-1.67( .88)	-.13
초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sup>c</sup>	1.58( .92)	.13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sup>c</sup>	.95( .87)	.08
영유아기 아버지 취업력 <sup>c</sup>	-1.93(2.53)	-.06
초등학교 시기 아버지 취업력 <sup>c</sup>	.83(2.43)	.03
중고등학교 시기 아버지 취업력 <sup>c</sup>	-1.90(1.64)	-.08
성취동기	.14( .05)**	.18
직업 양성평등의식	-.02( .06)	-.03
사회문화 양성평등의식	.04( .05)	.07
F	2.26*	
R <sup>2</sup>	.08	

\*\* p&lt;.01

a. (남성=0, 여성=1) b. (저학년=0, 고학년=1) c. (비취업=0, 취업=1)

&lt;표 6&gt;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남학생		여학생	
	B (SE B)	$\beta$	B (SE B)	$\beta$
학년 <sup>a</sup>	-1.59( .64)*	-.26	1.06( .45)*	.16
가족 소득	-.24( .40)	-.07	.66( .32)*	.15
영유아기 어머니 취업력 <sup>b</sup>	-2.04(1.78)	-.18	-.90(1.04)	-.06
초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sup>b</sup>	-.85(2.36)	-.08	2.03(1.03)*	.16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sup>b</sup>	2.86(2.81)	.25	1.01(1.01)	.08
영유아기 아버지 취업력 <sup>b</sup>	-2.50(3.02)	-.10	.99(4.05)	.03
초등학교 시기 아버지 취업력 <sup>b</sup>	1.62(2.90)	.07	-2.04(3.97)	-.06
중고등학교 시기 아버지 취업력 <sup>b</sup>	-.19(2.13)	-.01	-2.54(2.46)	-.09
성취동기	.10( .08)	.15	.11( .06)*	.14
직업 양성평등의식	-.05( .08)	.08	-.03( .08)	-.03
사회문화 양성평등의식	.18( .09)*	.26	.02( .06)	.06
F	1.82*		2.68**	
R <sup>2</sup>	.20		.13	

\* p&lt;.05, \*\* p&lt;.01

a. (저학년=0, 고학년=1) b. (비취업=0, 취업=1)

값은 남학생과 여학생 공히 1.04에서 2.49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Myers, 2000). 먼저, 남학생의 경우, 학년( $\beta = -.24, p < .05$ )과 사회문화 양성평등의식( $\beta = .26, p < .05$ )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예측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신념이 약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학년( $\beta = .14, p < .05$ ), 가족 소득( $\beta = .15, p < .05$ ),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 $\beta = .16, p < .05$ ),

그리고 성취동기( $\beta = .15, p < .05$ )가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취업했을 경우, 그리고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소득은 부적인 영향력을 미쳐, 가족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 중 가장 영향력 높은 변수는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이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가족소득,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 그



리고 성취동기가 여학생의 신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영향력도 반대로 나타나 여학생은 학년이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비슷하게 나타나, 남학생은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20%, 여학생은 13%가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38명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성별, 학년, 가족소득, 부모의 취업력, 성취동기, 직업 및 가족문화 양성평등 의식 등의 변인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대학생의 긍정적 신념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취업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성장과정에서 시기별 아버지의 취업력에 따라서는 대학생의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취업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어머니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시기에 취업을 했던 경우, 취업하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을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대부분의 아버지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 및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취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자녀 여성의 취업에 대한 신념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대상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아버지의 취업력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여전히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이 유자녀 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닌지는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년과 고학년 대학생 간에도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신념에 성별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음을 예상하게 하며,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학 재학 시절 동안 저학년과 고학년 대학생 간에는 이러한 신념과 의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념에 성별과 학년 각각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수준이 낮은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이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역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및 진로선택에 대한 생각이 저학년과 고학년 대학생 간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고학년 시기에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취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녀 출산 이후 양육문제 등이 가져올 현실적인 어려움을 예측하게 됨으로써 배우자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대학교 저학년 시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와 상반되는 변화가 예상된다. 대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이후에도 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의지의 반영으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기 보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신념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학년의 차이에 따라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신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대학 입학 이전의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의 각 시기별로 어머니 취업에 대한 신념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성취동기가 높은 대학생은 어머니 취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도 더 높았다. 즉 성공에 대한 동기가 높을 때 유자녀 여성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어머니가 가진 직업관련 성취동기가 높을 때 어머니가 보다 긍정적으로 유자녀 여성의 취업을 인식했다는 선행연구 결과(Chang, 2003)와 비교해 보면,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살펴본 결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살펴본 결과에서 모두 성취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념의 긍정적 경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성취동기가 높으면 자녀의 성취동기를 격려하는 양육방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성취동기 역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모두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영유아기 취업력과 성취동기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영유아기의 어머니 취업은 부적 영향을, 성취동기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취업했던 기억이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란 신념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나 중고등학교 시기에 어머니가 취업한 경험은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영유아기에 어머니가 취업한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이라는 믿음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경험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자녀가 성장한 후 가지게 되는 어머니 취업 관련 인식이 발달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며, 성인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생의 초기 발달에 해당하는 영유아기에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을 전담하기보다 취업과 양육을 병행한 경험이 모성 취업의 긍정적 측면을 약화시켰다는 결과는 향후 맞벌이가정을 위한 보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여성이 취업한 이후 가장 활발하게 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기와 자녀를 출산하고 보육해야 하는 시기가 맞물려 있으므로 취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벌이가정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과 사회문화 양성평등의식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신념이 약해졌으며, 사회문화적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여성인 어머니의 취업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학년, 가족소득,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 그리고 성취동기가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쳤다.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취업했을 경우, 그리고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소득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가족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가족소득,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 그리고 성취동기가 여학생의 신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영향력도 반대로 나타나 여학생은 학년이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어머니 취업에 대한 남학생의 긍정적 신념을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학년이 여학생의 경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실제 사회 진출과 결혼, 취업 등이 가까워질수록 유자녀 여성취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신의 실제 생활로 다가오는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행이라는 현실 앞에 보다 타협적이고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에 유의하지 않았던 가족 소득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

념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가족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이 가계에 경제적 도움을 미친다면, 자녀의 성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신념의 간접적 표현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후 연구에서 어머니 취업의 이유 등 어머니 취업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 변인을 포함시킨다면 어머니 취업을 대하는 사회의 가치관을 심도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시사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전국적 규모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대학생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시기별 부모의 취업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각 시기별 일시적인 비취업과 지속적인 비취업 상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영유아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구분되는 각 시기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취업 상태를 응답함에 있어 잠시라도 실직 상태였을 경우 비취업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나, 응답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취업의 경우 최소 6년(영유아기/초등/중고등) 동안의 지속적 비취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의 비취업(실직)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취업력은 대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취업 및 실직의 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셋째,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많이 표집되었고, 유사한 연령대로부터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의 차이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부정적 신념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그 동안 간과되었던 어머니의 취업의 긍정적 신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실제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부모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생애발달 시기에 따라 어떤 양상을 띠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성별에 따른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에 결혼 전의 태도와 결혼과 출산 이후의 태도를 비교하여 양육경험

과 직업특성, 가족관계 특성 등에 따른 태도변화를 연구할 필요도 제기하였다.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모성보호 및 보육제도에 따라 결혼 전과 결혼 후의 태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재순(2007). 중고생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진로자아효능감.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경숙 · 한아름(2007).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관련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269-1278.
- 권희경(1997). 개인특성 및 성장환경과 가족특성에 따른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성취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희경(2006). 경남 지역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기초 조사. *창원대학교 생활과학 연구*, **10(1)**, 1-13.
- 김양희 · 정경아(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우영(2003).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3(1)**, 67-101.
- 김원경(2008).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 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 박영신 ·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배성연 (2005). 취업모 자녀의 사회 정서적 행동 반응 관련 요인: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영 · 권희경 · 장영은(2010).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력, 성취동기와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3)**, 115-124.
- 손경화 · 조복희(2009). 취업신념 측정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69-78.
- 유계식 · 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259-288.
- 이운경 · 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재창 · 유계식(1996).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13**, 111-145.
- 장영은(2009). 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학회지*, **27**, 111-122.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수연 · 박영신 · 김의철(2006).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3.
- Beere, C. A., King, D. W., & King, L. A.(1984).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A measure of attitudes toward equality between the sexes. *Sex Roles*, **10**, 563-576.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 1-9.
- Brooks-Gunn, J., Han, W., & Waldfogel, K. (200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3**, 1052-1072.
- Chang, Y. E. (2003). *Mothers' attitudes toward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well-being,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outcomes: When mothers engage in different amounts of employ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larke-Stewart, K.A. (1989). Infant day-care: Malignant or malignant? *American Psychology*, **44**, 266-273.
- Greenberger, E., Goldberg, W. A., Crawford, T. J., & Granger, J. (1988).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35-59.
- Harvey, E. (1999).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parental employment on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5**, 445-459.
- Hock, E., & DeMeis, D. K. (1990). Depression in mothers of infants: The role of maternal employ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83-291.
- King, L. A., & King, D. W. (1997).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Development, psychometric properties, and

-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71-87.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 Early child care and self-control, compliance, and problem behavior at 24 and 36 months. *Child Development*, 69, 1145-1170.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83). Achievement-related motives and behaviors. In J. T. Spence (ed.),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es: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es* (pp. 7-74).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 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Journal*, 29, 663-676.

- 접수 일 : 2010년 03월 13일
- 심사 일 : 2010년 03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7월 29일